

국제투자의 변천과 최근동향

한 은 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대외경제관계를 우리 식으로 확대발전 시켜나가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8권 194페이지)

국제투자의 변천과정과 최근동향을 옳게 분석하는것은 대외경제관계를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으로, 주동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오늘 국제투자는 나라들사이의 대외경제거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면서 급속히 확대되고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적규모에서 국제투자의 규모는 세계무역총액을 능가하고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대외경제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있으며 이에 옳게 대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국제투자를 시기적절하게 우리의 요구에 맞게 옳게 리용한다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대외경제관계를 주동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국제투자는 보다 많은 리윤을 얻을 목적으로 나라들사이에 일정한 대상을 놓고 자금을 지출하는 국제경제활동이다.

이로부터 국제투자는 그 발생초기부터 오랜 세월 제국주의자들의 리유희득을 위한 착취와 략탈의 수단으로 리용되어왔다.

국제투자가 제국주의의 출현과 함께 발생하여 오늘날까지 변천되어온 과정을 투자형식과 대상의 변화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어볼수 있다.

첫째 단계는 19세기말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전까지의 기간에 해당된다.

이 시기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먼저 들어선 영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렬강들은 자

국내의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한편 자연부원과 로동력이 풍부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와 지역을 식민지로 강점하고 자본축적을 다그쳤다.

특히 영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을, 미국은 주로 캐나다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을 식민지로 틀어쥐고 철도운수, 광물채굴, 석유개발, 열대식물재배 등 기초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여 풍부한 자연부원을 거의 무상으로 략탈하였다. 결과 독점기업체들속에서는 과잉자본이 막대하게 생겨나게 되였으며 이것은 자본주의나라들사이에 간접투자의 형식으로 호상 침투되어 국제적인 자본류동을 산생시키였다.

이 시기 국제투자의 중요한 특징은 차관, 《원조》, 증권투자와 같은 간접투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것이였다. 19세기말부터 1914년까지 세계적인 국제투자총액은 2배로 장성하여 410억US\$에 달하였는데 그가운데서 90%는 증권투자였으며 직접투자는 10%밖에 차지하지 못하였다. 1913년 영국은 세계 주요대외투자국으로서 세계 총국제투자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있었으며 그중 70.5%가 증권투자였다.

직접투자보다 간접투자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것은 이 시기 제국주의나라들이 식민지들에서의 부등가교환과 자원 략탈에 더 큰 의의를 부여한데 있었으며 생산적자본수출이 아직 미약하였던 사정과 관련되어있었다.

둘째 단계는 1914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에 해당된다.

이 기간에 제국주의렬강들의 무제한한 리윤추구와 식민지재분할을 위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이것은 제국주의

나라들의 해외자본진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었다.

이 기간 제국주의나라들에서 경제의 군사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과잉자본이 군사력강화에 집중되고 전반적인 국제투자가 심한 편파성을 띠면서 급속히 줄어들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1945년에 주요제국주의나라들의 국제투자총액은 1914년의 410억US\$로부터 380억US\$로 떨어졌다.

이 기간에 국제투자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전쟁의 피해로 하여 유럽의 제국주의열강들의 지위는 약해지고 막대한 전실토록을 얻고 비대해진 미국이 국제투자에서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게 된것이다.

미국은 화학공업, 군수공업, 전기설비를 생산하는 공업과 같은 새로 출현한 제조업 분야에 대한 직접투자를 강화한 결과 1940년에 그 총액은 13억US\$로서 총직접투자가운데서 27.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미국은 전쟁을 통하여 해외팽창을 강화한 결과 1927년에는 172억US\$의 국제투자액을 소유하고있는 영국 다음가는 투자국이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결속될 당시에는 이미 제국주의열강들속에서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셋째 단계는 1945년부터 1970년대말까지의 기간에 해당된다.

이 시기 국제투자의 중요한 특징은 우선 간접투자와 함께 직접투자가 점점 확대되기 시작한것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결속된 후 전쟁을 통하여 막대한 자금을 긁어모은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지배적지위를 리용하여 일본과 유럽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 대한 직접투자를 광범히 진행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직접투자의 비중이 1945년에는 39.2%이던것이 1978년에 이르러 61.6%로 현저히 늘어났다.

이 단계에서 직접투자의 비중이 확대된

것은 이 기간에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선진과학기술의 급속한 보급으로 하여 새 제품들이 대량 출현하고 공업의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어 생산력이 빠른 속도로 장성함으로써 투자의 상환기간이 비교적 짧아지고 그 상환률이 높아졌기때문이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사이의 직접투자가 광범히 진행되게 된것은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아시아와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인민민주주의국가를 창설하였으며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직접투자의 착취적본성을 깨닫고 그것을 반대배격하는 기운이 강화된것과 관련되었다.

이 시기 국제투자의 중요한 특징은 또한 제국주의나라들의 투자구조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것이다.

이 단계의 마지막시기에 투자를 하는 제국주의나라들의 지위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1973년부터 1983년까지 미국이 세계투자총액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49%로부터 43.9%로 떨어지고 영국은 13%로부터 17.7%로, 일본은 5%로부터 6.2%로 올랐다. 이것은 국제투자에서 미국의 지배적지위가 약화되고 손아래동맹자들의 지위가 올라가고있다는것을 말하여 주며 투자면에서도 자본주의의 불균등적발전이 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 시기 국제투자의 중요한 특징은 또한 제국주의나라들의 국제투자가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고 강화된것이다.

이 기간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위축되었던 투자전반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급속히 확대되었다. 전쟁이 종식된 때로부터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사이의 국제투자는 부단히 강화되어 1978년에 그 총액은 무려 6 000억US\$에 이르렀다.

넷째 단계는 1980년대부터 20세기말까지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정치경제무대에서는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났다.

우선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대량의 파잉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유착되어 자본수출의 물질적기초가 강화되고 다국적기업의 《세계일체화》경영전략이 출현함으로써 국제투자가 전세계적규모에서 다그쳐진 것이다.

이 시기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전자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커다란 과학기술적진보가 이룩되어 급속한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자본의 국제류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특히 금융시장이 더욱더 자유화되고 그 규모가 급속히 확대됨으로써 간접투자를 직접 추동하였을뿐아니라 대량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유착되어 직접투자에 넓고 편리한 융자경로를 제공하여 국제투자의 전반적발전을 촉진하였다.

이로부터 다국적기업들이 대대적으로 출현하고 그것들이 국제직접투자의 주요담당자, 국제간접투자의 주요참여자가 되어 부당한 《세계일체화》경영전략을 받아들임으로써 전세계적규모에서 자본류동의 국제화심도가 깊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자본주의열강들의 리유흥득의 규모와 범위가 전세계적범위로 확대되고 그들의 착취와 략탈이 신식민주의형태로 이행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되는 것을 계기로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에서 《개혁》, 《개방》정책을 받아들임으로써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국제투자의 많은 몫이 이 나라들로 흘러든것이다.

과학기술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발전도상나라들은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공업의 현대화를 다그치며 새로운 산업부문, 기업들을 창설한다고 하면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자본투자를 적극 받아들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제국주의나라들에서 20세기말에 이르러 로동집약형산업으로부터 기술집약

형산업으로 이행하고 새로운 봉사업이 대대적으로 출현하였다. 이로부터 다국적기업체들은 높은 리윤을 위하여 자원확보, 로동집약형산업건설, 기술이전 등의 명목으로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직접투자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국제적분업화를 다그쳤다. 결과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국제직접투자의 비중은 1990년의 17.8%로부터 1999년에는 29.7%로 늘어났으며 그중 아시아태평양지역에 52%, 라틴아메리카의 까리브해지역에 34.7%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적인 지배권을 틀어쥐고 자기들의 의사에 맞게 기업을 운영하면서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기 위한 제국주의열강들의 교활한 책동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상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열강들의 직접투자는 그 나라들에서 경제의 편파성과 일면성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민족산업을 파산시키고 경제의 자립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최근시기 국제투자무대에서는 발전도상나라들이 경제의 지역적통합을 이룩하고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의 《세계화》전략에 대처하기 위한 투자정책들을 세우는 등 새로운 동향을 보이고있다.

최근 국제투자에서 나타나고있는 새로운 동향은 우선 발전도상나라들이 경제의 자립성과 호상리익을 존중하는 기초우에서 경제적협조와 단결을 강화함으로써 이 나라들사이의 국제투자의 장성속도가 빨라지고있는것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은 경제의 지역화를 실현하여 경제적자립을 이룩할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세계인구의 70%, 령토의 60%, 부침평면적의 70%를 차지하고있는 발전도상나라들은 새 사회건설에서 얻은 좋은 경험과 기술도 가지고있으며 정치적으로 단합하여 협조를 실현한 일련의 경험도 가지고있다. 특히 아시아에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연부원이 많이 매장되어있다.

지금 아시아의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은 이런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여러가지 경제협력지대를 창설하고 무역협조, 금융분야에서의 협조, 과학기술협조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경제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아시아의 발전도상나라들사이 혹은 지역들사이에 이루어지는 호상교차투자가 늘어나 이 나라와 지역들에 대한 국제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의 25%로부터 2000년에는 37%로 증가하였다.

최근 국제투자에서 나타나고있는 새로운 동향은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나라들이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 대한 국제투자를 부단히 증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는것이다.

1990~2004년사이 아시아나라들의 국제직접투자는 4.3배 늘어났다. 2003년말 당

시 중국의 국제직접투자루계액은 1 200억 US\$에 달하고있으며 인디아의 국제투자도 1996년 4월부터 2004년 11월사이에 약 6배로 늘어났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 미국에 대한 아시아나라들의 국제투자액은 1988년의 0.8%로부터 12%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최근시기 발전도상나라들이 진행하는 국제투자가 날로 강화되고있으며 국제투자무대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이 차지하는 지위는 더욱더 높아지고있다. 이것은 미제의 세계경제제패전략이 무너지고 세계의 투자구조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것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국제투자의 변천과정과 최근시기 동향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투자관계를 주동적으로 맺고 옳게 리용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